

거울집



《어휴, 겨우 나왔네.》
 안도의 숨을 내쉬는것도 한순간, 《아이쿠, 이마야.》
 하하하, 호호호, 웃음집이 러진다. 사면팔방이 거울로 막혀있어
 오직 자기 모습밖에 볼수 없는 자그마한 공간의 거울집.
 일단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조련치 않다. 한창 길을 찾아
 헤매다가 여기로구나 하는 순간에 또 다른 거울에 이마를 들이받는
 당사자는 물론 그 모양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만발한다. 말그대로 웃음집이다.

